나의 대학 생활 독서 계획

201914009

김수현

저는 이 독서 계획 과제 전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과서의 난이도는 학년이 올라갈 수 록 조금씩 올라가는데 왜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그렇게 차이를 많이 느끼고 이해를 못해 학원들을 찾아갈까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글쓴이는 독서량의 부족이라고 주장합니다. 독서량이 부족하니 그에 대한 독서능력과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아서 다음 학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독서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국어 교육을 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책을 읽으면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고 있을 때 이 과제를 맡게 되어 이번에 차라리 하는 김에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독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읽고 싶은 분야를 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방학에 특히 많이 읽을 예정인데 제가 책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힐링도서와 재미있는 스토리가 기대되는 스토리 도서 계획을 먼저 잡았습니다.

힐링도서로는 먼저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베스트 셀러로 나와있길래 이참에 읽어보려고 하는 데 먼저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열 관계속에서 느낀바를 책안에서 담담하면서도 진솔한 문체로 풀어내고 있다고 들어 읽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쩌지,고양이라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용한>이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에 똥꼬 발랄 고양이들의 인간 몰래 성장기라고 적혀 있는 표지를 보고 이건 꼭 보고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책으로는 마라톤에서 지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심슨 가족의 작가 특유의 위트 넘치는 문장과 직접 그린 엉성한 일러스트 사이사이에 혼자서 마라톤에 우연한 계기로 관심이 생겨 혼자서 훈련을 시작하면서 느낀 점들을 서술한 책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이 가기 전에 해야하는 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와 같이 죽음을 앞둔 중환자를 수 없이 만나는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가 일평생 맺은 관계를 풍요롭게 살찌우는 것이 다름 아닌 당연한 말 네 마디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책입니다.

간단 줄거리만 봐도 맘이 찡해서 꼭 읽어보고 싶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후회 없이 살고 있나요?라는 책입니다. 내일이면 너무 늦을 깨달음과 같이 삶의 의미를 좇은 이창재 감독이 쓰는 글이라고 하니 다큐멘터리 감독이시기도 해서 나름 기대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엄마와 함께한 마지막 북클럽이라는 책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함께한 엄마와 아들의 특별한 인생수업을 다룬 이야기로 미치 앨봄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읽었었는데 그 책을 기획 편집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 쓴 글이니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기왕이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처럼 영판으로 읽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서관 옆집에서 살기라는 책입니다. 오직 책을 읽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서관 옆집으로 이사가는 내용이데 아이들에게 강요하듯 책을 읽게하는 것이 부모의 지나친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부모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복 돋아 주는 책이기에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독서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할까라는 주제에 대해 자주 고민하는 나이기에 공부하는 겸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공부하는 가족입니다를 읽을 예정입니다. 엄청난 빚을 떠안고 가난과 싸우면서도 두 아이를 mit 장학생,최연소 행정고시 합격생으로 키운 엄마의 에세이라고 합니다. 어떤 심정을 느꼈을지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요즘에는 기숙사 살면서 떨어져 지내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나서 읽고 싶어졌기 때문에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행기로는 위로였으면 좋겠다, 유럽을 그리다,여행을 믿는다 등이 있습니다. 여행기는 제가 해외여행을 다 다녀볼 수 도 없고 국내 또한 공부하거나 하다보면 자신 바로 위의 하늘도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 대리만족을 위해서 여행기 등을 읽어보고 나중에 시간날 때 여행계획등 가고 싶은 곳에 대한 기대를 부풀려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집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시집이 왜 존재하는 지 몰랐습니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감미로운 시, 아름다운 시는 무슨 언제나 수능에 출제 가능성 높은 시 이런거나 읽으라고 하는 지금의 입시 사회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읽었던 시집 중에 달을 닮은 너에게 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사랑시, 이별시 등등 여러 종류의 시들이 모여 있어서 기분이 울적할 때나 긴장 되는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기에 시집을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집은 친구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블레이크 시선이라는 이해하기 좀 힘든 시집이라는데 이런 책도 한번쯤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않다고 생각을 했고, 다음으로는 악당의 명언이라는 책입니다. 시라기 보다도 명언 집에 가까운데 친구가 명언 중의 명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시집이라고 하니 읽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야밤의 공대생 만화라는 책도 읽어볼 예정입니다. 시집이 아니라 만화지만 그 친구가 시집 두편과 함께 추천한 만화이기에 과학자, 수학자들의 업적을 소개하는 만화도 공대생으로서 가끔 상식이라고 할 만한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 골랐습니다.

다음은 지적교양 도서 입니다. 방금 야밤의 공대생 만화라는 책도 어떻게 보면 지적교양 도서이지만 먼저 설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죽음의 에티켓이라는 책입니다. 콜란트 슐츠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누구나 겪을 죽음의 전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된 책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하여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번쯤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미첼 레스틱의 평생유치원이라는 책 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 인재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고 국내에서도 정규과정 내에 코딩 교육을 도입하는 등 변화를 시도 하고 있으나 교육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레스닉 교수는 창의력이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주장하며 창의적 학습의 핵심요소들과 코딩을 활용한 실행법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코딩을 배우고 있는 만큼 관심이 더욱 생겨서 꼭 읽고 싶은 지식도서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는 어떻게 삶은 이끄는가 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헤쳐나가게 하는 나침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방면의 지식,과학적인 사고법에 바탕을 두고 감춰진 세상의 원리와 구조를 파악하며 세계관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필자가 주장하는 책으로서 세상을 꿰뚫어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평소에 느끼는 저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책으로 ‘하지만 우리가 틀렸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부터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할 때 뼈저리게 느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자체가 오개념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틀렸다면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지금의 세상을 바라봐야할까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책이므로 한번쯤 이 사람의 미래의 진실을 찾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광준의 생활명품이라는 책입니다. 저렴해도 쓰임새가 분명하고 만듦새 또한 아름다운 물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치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다시 돌아보는 책이라기에 뭔가 새로운 관점으로 다른 사물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는 힌트가 될 수 있지않을까 하는 마음에 흥미가 생겨서 읽고 싶어졌습니다. 교양도서,지식도서를 읽는 것은 물론이고 소설 같은 장르를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험생활 때 억지로 고전소설이나 이런 것을 읽을 때면 항상 내가 원하는 소설,시리즈 물들, 즉 시험에 나오지않는 소설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크맨, 느빌백작의

범죄를 읽어볼 예정입니다. 아직 이 두 책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읽어본 친구들이 추천을 해줬기에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핸드폰 사은품으로 딸려와서 애용중인 밀리의 서재라는 앱에는 리딩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책을 직접 보기에 어두운 방에서 보면 눈이 나빠질 수 있으니 자기 전에 몇 분동안 틀어놓고 읽은 후 밝은 후에 다시 읽는 것을 즐겨볼 생각입니다. 교수님이 예전에 공부할 때 말씀해주셨다시피 사람들의 기억은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이 있는데 장기기억으로 넘어가려면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감을 다 활용해서 학습하는 것이 기억에 오래남고 학습효과 또한 좋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따라서 밤에 들었던 부분을 시험기간을 제외한 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읽으며 무드 있고 행복한 날을 지내볼까 계획 중입니다. 리딩북으로 나와있는 책들은 동화책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했는데 잘 찾아보니 오히려 수준높은 책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골든아워1이라는 책입니다. 유명하신 의사인 이국종 교수님께서 쓰신 책으로 예전에 어떤 신문기사 같은 매체로 이 분의 명성은 알고 있었는데 책을 쓰셨다는 것은 지금 알게 되어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로 “봄날 아빠를 아세요?”라는 책과 “스노우”,”고요한 미래”,”캐빈 방정식”,”별일은 없고요?”,”무한의 섬”,”오후 5시, 한강은 불꽃놀이중”등을 리딩북으로 접해 볼 예정입니다.

그 외로는 이제 전공관련된 책으로서 아직 전공에 대한 공부능력이 딸려서 제대로 읽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책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파이썬 웹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파이참이나 vscode등으로 실습을 해보려고 했으나 이 책에서는 리눅스라는 말도 나오고 제가 보기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내년 중에 마스터하기로 계획하였고, 다음으로는 mysql로 배우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책입니다. 정확히 책 이름이 기억나지는 않는데 이 책을 기반으로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예습해보려고 했다가 mysql설치등부터 막혀서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따라서 이 책도 이번 학기 데이터베이스 수업이 끝나면 다시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대학생활 독서계획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실행 못할 책들도 있을 수 도 있고 예상외로 흥미가 떨어지는 책들도 있을 수 있을 테지만, 이번 계획을 세움으로서 독서를 바쁜 와중에도 꾸준히 하여 대학생에 걸맞는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